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6-17절

Tag: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17)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도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걸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서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제자들에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 다시 오리라.

너희들에게 그 길에(상황이나 방법, 원리, 계획)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었지 않느냐?

(도마가 그 길을 모른다고 하자-아마 평상시 딴짓하며 공부하지 않

았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쉽게 말씀하심. 핵심. 예수라는 인격, 개인에게 집중됨. 왜냐면 신격이기 때문임.

-나를 알고, 내게 배웠고, 나를 믿었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정 모르겠거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 하셨다.

-이 기적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증거들이다. 그러니 믿어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성령을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이 나라를 덮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현재 사면초가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그동안 대통령이 행했던 영적 무질서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1. 대통령은 영적으로 분명한 가치관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주변 사교집단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최씨 일가의 영향이 있음.)

2.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음. (새누리당을 포함한 전체 종교, 교육, 정치, 언론, 사회, 문화적으로 팽배한 현상)

3.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는 주체사상 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음.

4.위의 세가지가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들(대부분은 크게 관심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그렇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뭔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 +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6.25를 겪은 사람들이 약 7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됨.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상에 바쁨. 소위 의식화 되지 않음. (바빠서) -이 부류의 사람들의 표심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사람들이 4번에 속한 사람들을 언론으로 움직임.

-아무튼 현 대통령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참 좋겠는데...

-다만 정적들이 정권탈환의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더 혼란스럽겠구나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정적들은 마치 이것을 자신들이 정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가능했음. 6.25 한달전 미군 철수, 베트남 전략적으로 약세인 월맹이 승리함.)

-나는 이번 일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활을 건 책략에서 촉발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 정권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부분 곧 붕괴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신정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정권을 채찍으로 사용하시어 현 박근혜정권을 징계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사퇴로 이 일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면 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좌편향된 나라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

진 것은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안보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등.)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교과서 국정화는 그동안 좌익들이 근 30년이 넘도록 이룩해 놓은 좌편향 역사교육(검정화를 통해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편향으로 되돌리는 일이기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교과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 권한 하에 있음)

-그동안 우리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참으로 성실하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적화야욕을 버리도록 힘썼다. 그러나 그들은 핵무기로 남한을 배신하였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더 이상 햇볕정책을 취하지 않고 실리외교 노선을 걷고 있으며, 핵폭탄 실험을 통해서 급기야 개성공단 철수의 강수를 두게 되었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미국도 동조, 중국은 방해)

-즉,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인 실수나 부적절하고 영적인 혼란은 있지만 전체적인 국정은 대체적으로 잘 수습해 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언론의 주도로 인해 대통령에게서 모든 권한을 하루빨리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분위기다. 좌익들이 30년간 공들여온 교과서 자율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비리를 확대해석해서 나라의 역사왜곡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간이 된다면. but goto end.

-경제사정을 비롯한 1300조 가계 부채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그동안 국회는 표플리즘 지향적이어서 기업규제, 대기업 규제, 농민 보호, 중소기업 보호, 영세민 보호 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중소기업, 영세민, 농민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잘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좌편향 의원들은 아예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노동시장 규제개혁과 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가 쥐고 있는 바나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여전히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 미생들이 더 많다. 정규직이나 주주들은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결국 야당이 돕지 아니하면 여당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경제와 청년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데 푼돈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건 국민이건 알면서도 서서히 먹혀들어가는 것은 가계부채이다. 그나마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리고, 이자만 감당하는 달콤하지만 결코 건강하지는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규제왕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저 금리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어서 국민 대부분은 빚을 냈고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었어도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돈이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자부담으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더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end.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라는 강력하게 발전한다. 우리는 그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기독교를 계획적으로 핍박해 왔다. 개신교의 모든 비리들을 추적해서 세상에 드러내 놓았다. 이단들을 자유라는 명목으로 부분별하게 확산하도록 방치하였다.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해도 방관만 하였다.(cbs는 제외)

이제는 이들이 기독교가 무력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정권을 흔들고 있다.

정권의 사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함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철저히 기독교인의 진정성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한국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현대를 살아가는 제자 성경: 요한복음 6장 67-71절

Tag: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
옵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
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리라

(요6:67-71)